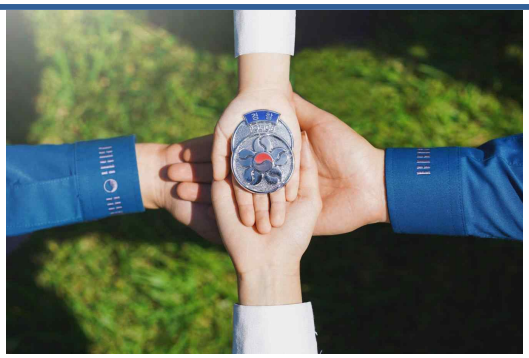
월간
경찰선교
경찰선교회 신문 (지령 247호)
2022년 10월호

"경찰이 복음화 되면 국민이 행복합니다"



한몸기도 편지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의 첫 세 시간은 기도로 보냅니다.

- 마틴 루터

오늘날 기도의 능력이 갈수록
과소평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낮없이 일합니다.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처럼 효과적인 삶은 없습니다.

기도는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이 낭비 중의 낭비입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풍성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삶은 인간의 한계만
드러납니다.

기도는 무기력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출처: 한몸기도 편지는 한동대학교 학생들에 의해 시작된 '한몸 프로젝트'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경찰선교 신문 소개

15만 경찰복음화를 위해 매월 8면으로
발행하는 경찰선교신문
경찰청을 비롯 전국 18개 경찰청, 경찰대학 등
부속기관
5개소, 전국경찰서 257개소, 후원교회,
개인후원자, 선교회원,
각 교단신학교, 교단 총회·노회사무실 등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위기와 혼돈의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사회학자들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한다. 역사의 발전 속도, 더 정확히 말하면 문명의 발전 속도가 문화의 발전이나 인간 지능의 한계를 초월함으로서 예측 불가능함이 상수화(常數化)되어버린 사회를 그렇게 정의(定意) 한다. 그러나 주변의 여러 현상을 보면 위기와 혼돈의 시대라고 표현함이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 도덕과 부도덕이 혼재되어 어떤 것이 바름인지 현상만으로는 판단하기 모호할 때가 많다.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사회 상위계층의 도덕적 해이와 정의감의 상실은 자연히 대중 전체의 문화에 젖어들며 중심부의 문화는 주변부로 서서히 확산 되어 간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의와 진실의 가치 기준이 명확해야 할 국가 사회를 도덕적 혼돈 속으로 빠지게 하며, 특히 지도급 인사들의 도덕적 일탈과 준법정신의 해체는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우리 성현들은 사람의 본성을 첫째로 다른 사람의 불행을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惻隱之心), 둘째로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수오지심(羞惡之心),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고 양보하는 사양지심(辭讓之心), 마지막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시비지심(是非之心)으로 파악하였다. 완벽한 성품이란 인간이 원천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나 최소한 대중 앞에 얼굴을 내밀고 대중을 상대로 지도자란 업(業)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회의 평균적 도덕심과 정의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간의 본질을 놓고도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신인류를 어떤 학자는 '뻔뻔한 인간'이란 뜻의 '호모 쉐임리스(Homo Shameless)' 라 정의 한다. 이들은 누가 더 두꺼운 얼굴을 가졌는가를 경쟁하고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전혀 죄의식 없으며, 성범죄는 기본이고, 사기, 약자에 대한 모욕, 이중성, 사익을 위해 무엇이든 갈취하는 인간들을 말한다.

성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호모 쉐임리스(Homo shameless)라고 지칭받는 사람이든 대중 속에서 필부필부(匹夫匹婦)로 살아가면 개인의 문제로 국한된다. 그러나 이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경우 국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말로 형언하기 어렵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를 성찰하여 그런 지위에 가지 않음이 가장 현명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공동체가 이를 제어할 시스템을 가져야 건강한 사회를 유지 할 수 있다. 혼돈과 위기의 시대에 국가 사회를 올바르게 세워야 함은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나 남미의 독재정권, 북한의 김정은 치하에서 종교와 인간 삶의 왜곡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는 역사나 언론을 통해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 말씀으로 바로 선 나라, 대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도록 기도하자. 십자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는 백성이 되자.

김병철 목사
경북·울산경찰청장, 경찰청 수사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단법인
경찰선교회 대표로 15만 대한민국 경찰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다.

사단법인 경찰선교회
policemission.kr
◉ 발행인 : 사단법인 경찰선교회대표(김병철목사) ◉ 편집인 : 윤장현/손은영 ◉ 발행일 : 2022.11.1.(목)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8 덕산빌딩 402호 경찰선교회 TEL. 02) 720-3863 FAX. 02) 720-4863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척도

'실정법'(實定法)을 한글사전에서는 "경험적·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성립되고, 현실적인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법"이라고 정의한다. 쉬이 와 닿지 않는 설명이지만,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법'이라는 의미는 뇌리에 남는다. 그런데 그 설명 끝에, '실정법'과 상대가 되는 말이 '자연법'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자연법'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규범이다. 자연법의 대표적 예가 황금률(golden rule)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다. 신자와 비신자 모두 양심을 가지고 있기에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다. 황금률처럼 자신이 당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아야 하고, 자신이 대우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하면 된다. 그러니까 양심법은 자연법과 동일하다.

자연법은 선한 것은 하라고 하고 악한 것은 하지 말라고 한다. 어떤 행위가 선한지 악한지가 분명하다. 이런 자연법과 달리, 실정법은 그 자체로는 선이나 악이 아니지만, 그렇게 규정하였기에 준수해야 하는 법이다.

실정법의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는 우측통행을 한다. 미국도 우측통행이고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도 우측통행이 법이다. 하지만 우측통행이 만국통상법은 아니다. 영국과 일본에서는 좌측통행이 법이다. 우리나라나 미국에서는 좌측통행을 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영국과 일본에서는 좌측통행을 해야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보행 방향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좌측통행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2009년에 법을 개정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는 우측통행이 원칙이 되었다.

차량 운행이나 보행 방향이 좌측통행인 것이 그 자체로 악은 아니다. 하지만 우측통행을 법으로, 원칙으로 규정하면, 좌측통행은 불법이 된다. 이렇듯 그 자체로는 선이나 악이 아니지만, 국가나 공동체가 준수하기로 규정함으로 성립된 법이 실정법이다. 이것이 일상에서 우리가 쓰는 '실정법'이라는 용어의 의미다.

창조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신 '선악과' 금지 규정은 실정법과 같은 법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6-17).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에 나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한 죄가 영원한 벌을 받아 마땅한 죄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학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선악과 규정이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비판하는 이들이 많았다.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그렇게 중한 죄일 수 있는가?'라는 것이 그들의 주된 주장이었다. 주일성수는 물론이고 나름대로 신앙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내게 시비를 걸고는 했다. 나는 성경의 가르침은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믿기에, 친구들의 비판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비를 거는 이들에게 확실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곤 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바로 답을 얻지는 못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을 공부하다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궁금함이 풀렸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규정이 실정법과 같은 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 자체로는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심으로 '실정법'이 발효되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셨지만, 한 가지만 예외로 하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 유일하게 금하신 하나였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은 피조물인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야 할 순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였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드러내는 상징적 법규였다. 그러므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냥 과일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며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폭거요 모반이었다.

아담은 에덴동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른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삶 대신에, 오직 한 규정, 즉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자신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악과 규정을 어김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명백히 드러내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이 대죄를 '원죄'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금하신 것은 아담의 순종을 입증하고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첫 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전 15:45).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8-19). 상징적 법규인 선악과 규정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온전한 순종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 번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

임원택 교수
백석평생교육신학원 학장. 백석대학교 역사신학 교수께서 경찰선교를 위하여 귀한 글을 보내주시었다

자존감의 근거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나눌 말씀은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고후12:9)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면 늘 생각나는 책 한권이 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기자인 미치 앨봄이 쓴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어느 날 미치 앨봄은 대학 때 자신을 가르쳤던 모리 교수님이 루게릭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평소 늘 존경하던 분이라 화요일마다 그분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대화는 모리 교수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미치 앨봄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얼마나 의연하고 초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초상을 스승에게서 발견합니다.

병상에 누운 모리 스승에게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젊은 것이 부럽지 않으세요?"
그러자 모리 교수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젊은 것이 부럽지만 차라리 젊은 것이 싫다네. 수영을 하고 헬스를 하고 특히 춤을 추는 것을 보면 부럽지. 하지만 젊은 게 싫어. 나도 젊은 것을 겪어 봤으니까. 나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대상이 되지 못하네. 내 안에는 내가 살아온 세월이 다 있어. 세 살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 40대, 지금 80넘은 내 나이가 내 안에 다 들어 있어. 나는 내가 적절하다고 필요하면 젊은이를 끌어내기도 하고, 현명함이 필요해지면 노인을 끌어내기도 한다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나의 병들고 늙어가는 인생을 젊음과 바꾸고 싶어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만일 나의 인생을 누군가와 바꿀 수만 있다면 저런 사람과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 "내 인생은 얼룩진 것이 너무도 많아. 실패와 상처 뿐인 내 인생~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이란 자신의 얼룩과 상처와 실패의 역사까지 나의 살과 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루게릭병에 들어 남은 인생의 시간이 몇 달 남지 않았어도, 자신이 살아온 전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 모리 교수처럼, 자기 생애의 전체성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몇 해전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서로 웃으면서 불렀던 유행가가 있습니다. 가수 서유석 선생님의 "너는 늙어 봤냐" 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비 되고 할배 되는 아름다운 시간도 너무나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들 먼저가신 아버님과 스승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린다. 인생이 끝나는 것은 포기할 때 끝장이다. 너 늙어 봤냐 나는 젊어 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출발이다"

굉장한 자존감이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인생의 황혼기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자신을 젊음과 바꿀 수 없다는 자존감이 그대로 녹아 있는 노래입니다.
"젊은이들아 너는 늙어 본 적이 없지만, 나는 젊어 봤다." 태어나고 아비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모든 시간이 너무도 아름답고 소중했던 시간이었다. 그 모든 아름다운 가치들을 품고 있는 이 늙은 나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나이, 이제부터 내 모든 역사성을 끌어안고 이 순간부터 나는 새출발이다"

저는 성경 속에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이름은 개명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가장 수치의 대명사로 여기고 있는 사울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키가 작고 못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눈에 안질이 걸려 미간을 찌푸리고 다녔습니다. 게다가 그는 화려한 말솜씨를 갖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바울의 학문과 그의 지나친 열정은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극복해 보려는 자구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바울은 사도가 된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밀고하고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순교자들의 가족들의 따가운 시선 앞에서 바울은 자신을 내세우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사도가 된 후 자존감의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치와 약함을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세월의 일기장을 펼쳐 놓고, 강했던 부분은 숨기고 어두웠던 그림자들을 자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모리 교수보다, '너는 늙어 봤냐?' 라는 노래 가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존감의 근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근거가 그리스도의 능력!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리고 싶어하는 연약함과 수치, 일그러진 자존감의 초상화 위에 머무십니다.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자랑거리를 떠나시고, 내 가슴을 피멍들게 한 나의 슬픈 역사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이창우 장로
광림교회장로이며 정형외과 전문의로, 서울 역삼동 선한목자병원을 이끌어 가고 있 다. 선한목자병원은 인공관절수술, 스포츠의학, 줄기세포로 대변되는 재생의료 연 구에 집중하고 있다. 굿세퍼드 재단을 통해 무료진료센터(현재 19개)를 세워 20년 간 의료선교를 해오고 있다. 저서는 의료선교의 과정을 담고 있는"건너와서 도우 라"와 의술철학과 신앙이 담겨진"바디 바이블", 인간의 감정을 심리 의학적으로 해석해 낸"마인드 바이블"이 있다.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나라에는 근래 지은 현대식건축의 교회가 많지만, 유럽에는 아직도 고딕식 교회건축물이 많다. 규모와 웅장함이 대단하고 하나의 예술품이라고 볼 수도 있다. 아마 건축양식은 르네상스때 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건물이지만 근래에는 텅빈 교회가 많다고 한다. 사람이 모이지 않고 교인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 증상은 비단 유럽뿐만은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그런곳이 있을 것이라 본다. 예수님의 기적을 감옥에서 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어 물어 보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니 예수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셨다.

세상적으로는 최고가 있으면 최저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겠지만, 비록 성장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기독교는 겨자씨와 같이 항상 성장하는 종교이다. 카메라의 포커스가 잘 맞춰져 있지 않으면 사진이 정확하고 선명하게 나오질 않는다. 사진에서 포커스가 중요하듯이 세상을 사는데 있어서나 일에 있어서나 포커스가 중요하다. 포커스가 잘 맞춰져 있지 않으면 일이나 삶이 흐트러지게 마련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라고 생각한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셨다.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된 것이고 천지창조 후에 단 한번 있는 일 이기 때문에 그 외 아들 독생자가 되셨다. 이 세상에 공생애 중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하신다고 하셨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인간의 능력으로 는 답할 수 없는 것을 서슴없이 답하므로 그들을 경탄케 했다.

이적을 떠나서, 그것은 곧 인간의 차원이 아니란 것을 말한다. 빌립이 예수께 말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잘 증언한 부문이고 그 외 신약성서에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막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예수님처럼 인격적인 분이신지 선하신지 만물을 주관하시는지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으신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신앙은 무의미 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격적인 분이시고 만물이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깨닫는다면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그리스도이다. 예수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누구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나 예수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세상에 단 한번 나타났다는 것과 그것은 당연히 예고 됐어야 하고 예고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지 못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하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셨다.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다. 어떤 사람은 세계 사대성인 중의 하나라고 대답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세주라고 하지만 왜 구세주인지 잘모르겠다. 또는 이천년 전에 죽은 사람이 오늘을 사는 자기와 무슨관계가 있느냐고 할 것이다.

예수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땅에 한번 내려오셨고,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 의해서 못박혀 돌아가셨다. 만약 예수께서 오늘 밤에 나타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 할 것인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할수 있겠는가? 실은 베드로도 성령에 이끌려서 엉겁결에 대답했을 뿐이다. 나를 구원해준 구세주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해본다.

조보영 권사

경찰인재개발원교회 성도입니다. 76세 고령임에도 빠짐 없이 주일성수를 지키시고 올 초에 계획한 영문 성경 필사를 마치신 열정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해외 선교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계시고, 경찰관들의 안전과 경찰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저는 암재활 의성제일요양병원에 사회복지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에바다 중창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의 남편은 오랜 세월 경찰에 몸을 담고 있었으며, 퇴직 후 노년을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하던 중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저는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무기력함에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려 나오는 찬송을 부르며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참 안식을 주시는 음성을 들려 주셨습니다.

그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놋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줄을 네게 알게 하리라!"(이사야 45장 2~3절) 저는 그 순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사역, 가정, 자녀, 질병 등 모든 삶의 한계를 주님의 손에 올려 드렸습니다. 오 주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시편 118편 17절)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였습니다.

마음속에 검은 구름이 걷히고 새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성에 있는 암재활 의성제일요양병원으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5년 동안 환우들을 섬기고 헌신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4년 전 갑상선암과 유방암으로 입원한 환자가 있었는데,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며 암을 치유할 수 있다는 말에 2천만 원짜리 작두굿도 했으나 치료는커녕 돈만 날려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환우를 에바다중창단에 함께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였으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깨끗이 암(cancer)이 치료되어 작년에 집사직분을 받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오기 전에 에바다중창단은 경북지역의 여러 교회에 초청을 받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복음의 절대 능력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혼과 일꾼을 붙여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절망과 아픔 속에 있는 암환우들에게 구원의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간절히 기도드리며, 슬픔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 하던 저를 다시 일어 설 수 있도록 위로와 사랑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명희 권사
군위 성결교회 권사로 계시며, 암재활 의성제일 요양병원 사회복지 실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祝 - 『암재활 의성제일요양병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3주기 인증서 받아

특수치료기기 // EECP 체외역박동 치료기

▶막혀있는 혈관을 개방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생혈관을 생성하여 우회혈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
▶심혈관질환 / 불면증 / 어지럼증 / 손발저림 / 발기부전 / 심근경색 / 협심증 / 수족냉증 / 당뇨 등

고주파 온열암치료(리미션1℃)

고주파 온열치료는 암 조직이 정상 조직에 비하여 열에 약하다는 원리를 이용하여 암 조직에만 선택적으로 에너지를 가하여 암세포 자살(apoptosis) 및 암세포의 괴사(necrosis)를 유발하는 암치료법입니다.

세계최초의 로봇형 감압치료!

수술없이 정상 생활로 복귀 시킬 수 있는 비수술 디스크 치료의 최종판!
1세대 견인치료
2세대 감압치료
목 허리디스크/척추측만증/좌골신경통

보건복지부 인증병원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
유능한 의료진과 첨단 시설을 갖춘
암재활 전문치료 요양병원

암재활전문치료 요양병원
[외래진료 합니다]
- 진료과목 : 내과/정형외과/신경과/비뇨기관
- 한방센터 : 약침/봉침/추나요법
- 물리치료 / 도수치료
- 건강검진 / 예방접종(대상포진/폐렴/독감)
- 체외충격파치료 : 관절근육통/족저근막염
- 페인클리닉 : 난치성 만성통증치료

• 2018. 08. 30. SBS생활경제 방영
• 순지트롬 : 천연플러렌 방사(1996년 노벨화학상 수상)
[암재활요양] 실손보험적용

부설 장례식장 운영 TEL 054)832.4400

암재활전문 의성제일요양병원
의료법인 세림의료재단

경북 의성군 홍솔로 94 (의성경찰서 맞은 편)
대표전화 : 054)832-7575 FAX : 054)832-7576
상담전화 : 010-3441-6080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제언

1. 도로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에 의한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는 제27조 제6항, 제44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제148조의2, 제156조 제10호 등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음주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보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불이익이 더욱 클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제9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와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인 제6호를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 도로가 아니더라도 만취운전자나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하므로 음주운전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2.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는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대상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모든 건설기계, 노면전차, 자전거 등이다.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농업용트랙터, 콤바인, 농업용 동력 운반차, 농업용 로더, 농업용 굴삭기, 트레일러, 경운기 등 41종의 농업기계는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죄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운기나 트랙터가 술을 마시고 도로를 운전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될 때 음주운전 형사처벌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근들어 농업기계 성능이 일반 자동차 못지 않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위험성이 높아 대책이 요구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농업기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추가하고 제156조에 처벌조항 신설하므로 해결된다. 산업화 시대, 농업기계 활용 장려의 취지로 만들어진 농업기계화촉진법이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법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농업기계 음주운전 규정을 만들어 농업기계 사용자로 하여금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길로 안내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3.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 아닌 곳 음주운전은 처벌대상 아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등을 말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0.03%~0.08% 미만은 100일 정지처분되고, 0.08% 이상은 소지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1년간 운전면허 취득자격도 상실된다. 편리성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평택경찰서 관내 유명 반도체 회사가 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출퇴근 함에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음주운전에 단속되고 음주 교통사고로 이어진다고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나아가 현행 규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범칙금 발부나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규정인 제156조 제1항 제11호, 제12호를 포함시켜 도로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로 외의 음주운전은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이어진다. 위험요소 사전 차단으로 음주운전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4. 음주운전은 해서도 안 되고, 시켜서도 안 되고, 타서도 안 된다.

대구지방법원은 2022. 7. 20. 선고 2022고단1731 판결을 통해,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이고 자신과 함께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0.040%)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가 집에 가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빨리 집으로 가자'고 독촉하였고, 남편에게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음주운전자 아내에게 남편의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따른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2022. 3. 24. 2021고단7834 판결을 통해, 음주운전(0.145%)과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징역형 실형을,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고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에게 방조죄를 적용하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간 경찰은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최근들어 동승자나 운전을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경찰수사가 강화되는 움직임이 있다. 음주운전자와 같이 같이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이상 음주운전 방조범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장선 집사
충남경찰청 기독선교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중앙경찰학교 교통학과 교수요원, 경찰인재개발원 교통학과 교수요원, 경찰청 현장강사로 근무했고, 현재 매주 2회 TBN 교통방송 생방송 인터뷰, 월간 수사연구 '이장선의 교통경찰지침' 칼럼 리스트, 운전면허 출제위원, 교통범죄수사 밴드(경찰관 8,200명) 운영자로 활동하는 교통전문가입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 음주운전 파헤치기(크라운출판사, 2021) 등 9권 출간하였습니다.

세계 복음화 365일 기도

일본을 위해 기도합니다.

4개의 큰섬과 3천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면적은 남한의 3.7배, 인구는 1억2천만명(세계 10위)이고 의회민주주의 입헌군주제입니다. 산이 많아 경작지는 13%에 불과하고 천연자원이 부족하지만 2차세계대전 후 수출 지향적 경제체제로 경제강국이 되었습니다. 89년 부동산 가격붕괴와 외채위기를 겪었고 08년 세계적인 경기후퇴의 영향을 받았으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높은 평균 수명의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70%이상이 종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은 우상숭배, 조상 숭배적 불교나 다신교적 신도 예식을 따릅니다. 공식 통계상으로 불교 69%, 기타 종교 23%, 무종교 5%, 기독교 1.5%(190만)이며 그중 개신교 50만, 카톨릭 50만, 독립교회 30만이고, 여호와의증인 등 유사 기독교(이단사이비)가 48만명입니다.

일찍 서양 문물을 받아 들였음에도 오랫동안 복음에 문을 열지 않은 나라이지만 최근 경제쇠락과 지진, 사회적 고립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영적 추구를 자극했고 기독교에 점점 더 마음을 여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일본인의 10%가 실행할 수 있는 종교로 기독교를 직접 선택했다고 하는데 영적 추수를 앞두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새해와 장례식 때 신도예식을 실천하라는 관습의 압박, 성경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세계관, 일본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적대감, 성실 근면으로 인한 분주함과 물질에 대한 야망, 매년 수십개씩 생겨나는 신흥종교, 과도한 민족주의가 복음을 방해하는 요인인데 이 오래된 문들을 친히 철장으로 파하여 주시고 다윗의 장막을 세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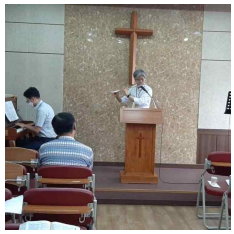
출처: 세계기도정보(Operation world) 제이슨 맨드릭, 조이선교회

서민선
한경연 총무. 2011년부터 경찰선교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4년 순회선교단 중보기도학교 수료후 365일 세계복음화 기도를 시작하여 2015년부터 경찰선교회 중보기도 단톡방에 매일 각 국의 선교 기도문을 올리고 있다.

4기동단 예배 재개

서울청 4기동단 선교회에서는 지난 9월14일(수)15:00 그동안 코로나 등의 사유로 닫혀있던 경목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10여명이 모여 함께 홍주헌 경찰선교회 목사의 설교로 예배를 재개하였다.

서울은평경찰서 목요 예배



은평경찰서 선교회(회장 고금영)는 9월15일(목)12:00 10여명이 모여 홍주헌 목사의 설교와 이인희 전도사의 플룻 독주, 홍주헌 목사의 피아노 반주로 예배를 드렸다.(피아노 반주와 플룻 독주로 풍성한 예배였다)

서울강서경찰서 예배 재개

서울강서경찰서 선교회(회장 박정환)는 코로나 등으로 중단되었던 수요 예배를 지난 9.13(화).12:00에 선교회원등 8명이 모여 홍주헌 목사의 설교와 특송으로 화요 예배를 재개하였다.

대전중부경찰서 수요예배

대전 중부경찰서 선교회는 송영진 경목실장과 5분의 경목위원 목사님들의 목양지도와 헌신으로 대전청에서는 드물게 경찰 선교사역이 활발한 경찰서 선교회로 알려져 있는바, 지난 8월31일(수)11:30~12:20간 수사과장 김장현 경정 등 18명의 회원들이 모여경배.찬양이 힘차게 시작 되었으며 수요예배를 드렸다. 특별히, 경찰선교회에서 파송된 조규환 목사(전 인천청 항공대장)의 '하늘 가는 길' 주제의 설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경찰장로회 회장 최성환 서장, 송정애경찰대학장 , 윤소식 치안감 등 믿음 좋은 경찰지휘관 들이 함께 했던 경찰서로서 코로나 기간중에도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고 송영진 경목실장은 고백 하고 있다.

이날 사)경찰선교사로서 대전청에 파송된 조규환 목사는 설교에서 우리 예수경찰은 삶의 현장에 주님의 제자로 파송된 영적인 선교사 임을 강조하였다.

예배후에는 중식을 함께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수요예배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기독선교회(회장 최동규 형사과장)에서는 9월21일 수요 정기 직장예배로 모였다. 이날 설교를 맡은 김희권목사(북부경찰서 경목실장)는 디모전서 4:6-8절 본문으로 경건훈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다음 모임은 경찰의 날을 기념하여 오는10월19일은 남양주 남부와 북부연합예배로 모이기로 했다.

서울경찰북지역기독선교연합회 정기월례회

서울경찰북지역기독선교연합회(회장 장영준 경위)에서는 9월15일 19:00 서울노원경찰서 경묵실에서 정기 월례회로 모였다. 1부 예배에서 김희권 목사는 고전9:16-19절 본문으로 바울의 선교정신을 본받아 우리도 복음에 빚 진자로 스스로 종이 되어 경찰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했다. 2부 총회에서는 북지역 경찰서별 선교활동 등 선교회 소식 나눔과 나라와 민족, 경찰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기다립니다 ♥~

전국 15만 경찰여러분의 신앙과 간증, 현장의 감동을 전해주십시오.
함께 나누고 만들어가는 경찰선교신문이 되고 싶습니다.

-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립니다.

♥ 경찰선교회는,
전국 경찰관서에 경찰선교신문을 통한 문서선교 활동과 중앙경찰학교 충성교회, WMTC세계선교회, 필리핀경찰선교사(이신기목사), 경찰전담선교목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경찰선교사입니다!!

※ 선교신문 받으시는 주소가 변경되신분은 경찰선교회(02-720-3863, e-mail : yoonjh0202@hanmail.net)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양육자가 안심하고 읽을 수 있는 성교육 시리즈
디지털 세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유기성, 이찬수, 이영훈, 이재훈
오정현, 오정호 목사
강력 추천!

1편 미디어와 음란물 편
너는 내 것이라
"음란물을 예방하고 끊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

나의 어여쁜 자야
2편 아름다운 남녀 창조 편
"남녀의 차이를 잘 알고 하나님이 주신 성별에 감사하자"

저자 | **김지연**
온누리교회 집사이며 영남신학대학교 기독교 성윤리 특임교수다. 교단과 지역을 초월하여 2,500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정식 예배 시간에 강단을 내어주기까지 안심하고 신뢰하는 이 분야의 검증된 사역자로 알려져 있다.

두란노